제602호 1989년3월4일 창간 2000년11월12일

교회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주간 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빌립보서 1:21)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THE WEEKLY CHOONG HYUN 발행인 : 김성관 편집인 : 노광현 편집국장 : 조선근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시63:4)
금요집회 시간에 드리는 제1회 충현 중창의 밤

다윗은 하나님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바라볼 수 있던 사람이었다. 비록 피흘리는 전쟁터에서 살았지만, 그는 시인이었고, 하늘나라를 노래하는 사람이었다. 그가 바라보는 밤하늘엔 하나님의 아름다운 손길이 담겨있었고(시8:3), 밤마다 그의 심장은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요동쳤다(시16:7). 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나아가 하나님을 송축하면(시134:2), 그의 눈은 심히 광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를 입으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다(시104:1). 그래서 노래하는 다윗을 생각하면 감옥에서 노래하던 바울과 실라가 떠오른다. 외롭고 쓸쓸한 빈들이나 고적한 감옥에서도 행복했었던 사람들, 이들은 모두 세상에서 가장 행복했었던 사람들이었다.

이번 주 금요집회는 충현의 모든 중창 팀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송축하는 시간을 가지게 된다. 찬양위원회에 속한 16개의 모든 중창팀들은 많은 시간 동안 함께 기도하며 호흡을 맞춰왔다. 금요집회 때마다 하나님을 향해 늘 준비된 찬양을 드리던 이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것은 참으로 감사하고 기쁜 일이다. 우리 모두의 거칠고 어려운 삶들을 주께 드리고, 우리의 영혼이 그를 향하여 담대히 찬송케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자. 영광의 주께서 우리의 영혼을 돌보시며, 찬송하는 이들의 영혼을 붙드시도록!

금요집회시간에 배우는 진리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시다(The God - Man)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이율배반'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과 인성을 함께 소유하셨다. 이 말은 신성과 인성이 각각 절반씩 있다는 뜻이 아니다. 그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이시라는 뜻이다. 여러분들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교회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율배반적인 사실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었다. 어떤 사람들은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되거나 받아들일 수 없어서 계시를 거부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교훈만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저하시켜 버리고 말았다.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이성으로 합리화하려고 노력했다. 그 결과 신성이나 인성 중 한쪽만을 강조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계시를 계속적으로 상충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이율배반적인 사실을 이성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며, 인간의 이성이나 지혜가 아닌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승인한다. 계시는 인간의 이성과 지혜로 반응할 때는 커다란 장벽이지만, 믿음으로 반응할 때는 감격과 신비와 경이로움이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율배반의 문제를 성경으로 돌아가서 해결해야 한다. 성경은 그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시라는 사실을 너무나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데, 인간의 이성이나 지혜가 낳는 어려움을 넉넉히 뛰어넘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인간이란 정의는 이미 인류 역사 속에서도 증명되었지만, 성경은 더욱더 그가 우리와 똑같은 완전한 사람이심을 자명하게 말하고 있으며, 그의 신성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미 충만하게 드러나고 있다(요1:1,14, 10:30,36, 20:28, 히1:1-3,8,11,12, 딤전2:5,6, 3:15 등).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이율배반적인 사실은 이성적이나 과학적이 아닌 지극히 성경적이고 계시적이다.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임을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율배반적인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넉넉히 그 권위를 부여받게 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그는 얼마나 놀랍고 경이로우신 분이신가!

정직 · 수찬정지 된 장로에 대한 제명, 출교 결의(결의서 서문)

본 충현교회 당회는 2000년 11월8일(수) 정기당회시 치리 당회를 열어 8인(윤명식, 김차생, 장은원, 손동운, 우기전, 박승준, 손경수, 이인상)에 대하여 본교회로부터 제명 · 출교를 결의하고, 그 사유와 당회장 김성관 목사 테러 사건과 관련된 장로들에 대한 그 동안의 처리 사항 전말을 정리하여 두기로 결의하였다.

1. 제명, 출교 결의 사유 / 위 8인은 당회장 테러 사건과 관련하여 정직과 수찬 정지를 당한 후에도 2000년 10월 말 경, 또다시 자신들은 본 사건과 무관하다는 주장과 함께 모든 책임을 고인이 된 고 임기채 장로에게 전가하는 내용의 편지를 교회 제직들에게 발송하다. 이는 이들이 여전히 회개하는 모습은 없이 계속 교회를 혼란케 하려는 행위로 판단하고 본 교회로부터 제명, 출교하기로 결의하다.
2. 당회장 김성관 목사 테러사건과 관련된 장로들에 대한 징계 조치 전말은 첨부된 전말서(전문 9페이지) 내용과 같다.
3. 당회원 서명 날인하다.

제직 앨범 사진촬영

2001년도 제직앨범 제작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촬영하고자 한다.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촬영에 협력해 주시기 바란다.

① 촬영 대상 : 45주년 제직 앨범에서 누락된 제직 / 1999년 12월에 임명받은 2000년도 남 · 여 서리집사 (1931년 이후 출생자)
② 촬영 기간 : 11월5일(주일)부터 12월10일(주일)까지 주일만 촬영
③ 촬영 시간 : 주일 오전10시에서 오후4시30분 사이에 방문하여 촬영할 것
③ 촬영 장소 : 선교관 408호 홍보실
④ 주의 사항 : 촬영날짜를 지킬 것(날짜를 넘기면 더 이상 받지 않음) 45주년 제직앨범(청색앨범)에 나와 있는 제직은 다시 찍지 않음, 사진을 가져오는 것은 받지 않음.

교역자 인사

그동안 충현교회를 섬겼던 전형준 목사와 정갑신 목사, 그리고 조철수 목사가 사임하고, 새롭게 이수근 목사(62년10월생), 이유진 목사(62년10월생), 안창덕 목사(63년5월생), 그리고 방준영 목사(63년9월생)가 부임하였다. 새로운 곳에서 주님을 섬기게 될 이들이나, 이곳에서 주님을 섬기게 될 이들을 위해 성령의 능력이 덧입혀짐으로 말미암아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하자.

이수근 목사

이유진 목사

안창덕 목사

방준영 목사

신령한 예배를 위한 제안

· 예배전 휴대폰 전원을 미리 차단하세요.

· 예배좌석은 장의자의 안쪽부터 앉아주세요.

· 주일설교기록('충현의 만나'에 삽입된 '주일설교노트' 활용)

목양 칼럼

낙엽(落葉)을 보면

낙엽을 보면
영광의 보좌(寶座)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거친 땅
고이 내려앉으신
빼꾹새 사랑이 생각납니다.
나는,
얼른 하나 주워들고
잎새에 담겨진
깊은 사랑 느껴봅니다.

낙엽을 보면
세상의 왕이길 포기하신
인자(人子)!
십자가
말없이 오르신
가시나무새 사랑이 생각납니다.
나는,
가만히 입맞추며
잎새에 깃든
붉은 사랑 더듬어 봅니다.

그리스도여!
겨울을 이겨내고
새롭게 피어날
그날이 있듯이
바람에 밀려가는 낙엽!
그곳에
당신의 부활(復活)
곱게 곱게
물들어 있음을 느껴봅니다.

잎새 하나에 소망을 담은 O.헨리의 이야기가 왜 우리의 가슴을 따스하게 하는 것일까?
낙엽을 보면 슬픔과 기쁨이 함께 다가온다. 슬픔은 그의 십자가이고 기쁨은 부활이다. 그래서일까!
발 앞에 뒹구는 낙엽엔 그분의 얼굴이 모두 새겨져 있다.

(김동하 목사)

Sermon for next week

THANKSGIVING

(Matthew 6:25-34)

"Therefore do not worry about tomorrow; for tomorrow will care for itself. Each day has enough trouble of its own."

As He sat on a mountainside with His disciples, the Creator of heaven and earth preached about the picture, precepts, and practice of Kingdom life. During His awesome sermon, the Creator of mankind, animals, and plants specifically preached about the practice of Kingdom life in relation to anxiety. He told His followers, "For this reason I say to you, do not be worried about your life, as to what you will eat or what you will drink; nor for your body, as to what you will put on. Is not life more than food, and the body more than clothing?" (v. 25). Jesus, the Creator of the universe, was talking about how humans cannot serve Him and wealth (see vs. 24). As our Creator, He knows us inside and outside. He knows that it is impossible for any human being to serve two masters. He wants you, His special creation, to understand that if you serve Him, you need not ever worry about your life and those things that are needed to support it.

In human society, people love money. They love the various things money can buy. But our Creator God preached, "For this reason I say to you". In other words, if you are a child of God, you have to serve God not money. If you believe Jesus, you can't worship wealth. All humans were created solely to glorify God (see Isa. 43:7). You're not made to serve two entities. God, the Creator, wants you to clearly understand that it is for this important reason that you're unable to follow two masters. Do you understand? Do you truly believe that Jesus is God, the Creator of your soul, the Maker of all things? Because no human being can serve two masters, the question is whom do you serve?

People who don't know Jesus, the reason for life, believe in money. You can tell that a lot of people don't know about "for this reason" because of the ways of this world. All the nations, cultures, and societies of this world are premised on money. Aren't you thankful that you know the reason for life? Aren't you super appreciative that you know Jesus? Aren't you jumping for joy because you know that you can't serve two masters? Isn't this precious information something to be ever so thankful for receiving? Why worry about your life if you understand who your master is? If you know that your Master is the Creator God, the preacher of this great sermon, don't spend even a moment fretting about food and clothing.

Jesus' sermon on the mountain didn't originate from the Bible. He didn't quote Old Testament passages for truth. He used the natural surroundings of our environment to shed light on reality. He referenced the birds, lilies, and grass of the fields to open our hearts to His ways, "Look at the birds of the air, that they do not sow, nor do they reap nor gather into barns, and yet your heavenly Father feeds them. Are you not worth much more than they" (v. 26)? God sent His only begotten Son to die for you? Isn't that beyond marvelous? If you understand, isn't that something to be really thankful for? People don't know, so many Christians don't know about the marvelous gift of grace God has bestowed upon mankind. When you look at the birds, do you think they are worrying about tomorrow? They eat, nest, and sing praises to God all day long. Think about, "And who of you by being worried can add a single hour to his life (v. 27)?

All the money, expensive clothing, and best food in the world cannot extend the length of your days here on earth, "And why are you worried about clothing? Observe how the lilies of the field grow; they do not toil nor do they spin, yet I say to you that not even Solomon in all his glory clothed himself like one of these" (vv. 28 & 29). Jesus referred to the lilies of the field to describe the beauty of God's care for His creation. He didn't use Daniel or any other bible verse to show the power of God. Instead, He compared Solomon's luxurious wealth as not even coming close to the care God gives to the flowers. How much more so does he love you, the one whom He sent His Son to die for? Do you realize how much God loves you? Do you realize how powerful and mighty our God is? "But if God so clothes the grass of the field, which is alive today and tomorrow is thrown into the furnace, will He not much more clothe you? You of little faith" (v. 30)!

As believers, we have such little faith. God gave us His Son, that's how much He loves and cares for us. Yet, we worry about our own stuff. We place money and other things above our Master. But God wants us to know, "Do not worry then, saying, 'What will we eat?' or 'What will we drink?' or 'What will we wear for clothing?' For the Gentiles eagerly seek all these things; for your heavenly Father knows that you need all these things"(vv. 31 & 32). God knows what we need! He provides everything we need. Isn't it so true to our life and times how followers of money anxiously seek food, drink, and clothing? It's amazing how Gentiles, not God's chosen, give so much time and effort to these things.

As a believer, a child of God, God asks you to "seek first His kingdom and His righteousness, and all these things will be added to you" (v. 33). Amen! God wants you to have life everlasting. Jesus tells us, "For I have come down from heaven, not to do My own will, but the will of Him who sent Me. This is the will of Him who sent Me, that of all that He has given Me I lose nothing, but raise it up on the last day. For this is the will of My Father, that everyone who beholds the Son and believe in Him will have eternal life, and I Myself will raise him up on the last day" (Jn. 6:38 & 39). Amen! God wants to save your life. He wants to give you all things, "He who did not spare His own Son, but delivered Him over for us all, how will He not also with Him freely give us all things" (Rom. 8:32)?

.My dear brothers and sisters, those who serve money don't serve God. They serve themselves. They care only about themselves. Those who serve money do so because they gain something or because they're smart. Whom do you want to serve? And for what purpose? Millions of people serve money because they care about their bodies, their clothes, but few people care for their lives. God cares about your life. I'm so glad that the Creator God gave us His sermon on the mount (see Mt. 5-7)! Jesus directly preached the will of God for our eternal life. He clearly told us that we cannot serve two masters, and for this reason we need not "worry about tomorrow; for tomorrow will care for itself. Each day has enough trouble of its own" (v. 34). Aren't you thankful? Don't look to what the world practices, look at these beautiful Bible verses and what they teach you. Please wake up! Why spend one moment longer worrying over things that God has in full control? He made the heavens and the earth. He provides His children with food, clothes and the other things that He knows you have need of. Trust Him and give thanks to Him because He loves you. His divine goodness, His grace and mercy, are things you should always be thankful for receiving.

다음 주일 설교

김 성 관 목사

감 사

(마6:25-34)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 날 괴로움은 그 날에 족하니라"

염려하지 말아야 할 이유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과 함께 산중턱에 앉으셔서, 하늘과 땅의 창조자로서, 왕국생활의 광경과 개념, 그리고 실천에 대하여 선포하셨습니다. 인간과 짐승, 모든 식물의 창조자이신 그분의 경이로운 설교가 진행되는 동안 특별히 왕국생활이 실천에 있어서 염려에 대하여 선포하셨습니다. 그는 그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25절). 예수, 우주의 창조자이신 그는 인간이 자신과 부귀를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24절). 우리의 창조자이신 예수는 우리의 내면과 외면을 모두 알고 계셨습니다. 그는 어떤 인간도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가 귀하게 창조된 여러분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만일 여러분들이 그를 섬긴다면 목숨과 생명을 연명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것들에 대해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이해하길 바라신다는 사실입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인간 사회 속에서 사람은 돈을 사랑합니다. 그러한 이들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가지각색의 것들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은 "그러한 연유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달리 말하자면, 만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돈이 아닌 하나님을 섬겨야만 한다는 뜻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면, 절대로 부를 경배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지음 받았습니다(사43:7). 여러분은 두 존재를 섬기기 위해 지음받은 것이 아닙니다. 창조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두 주인을 따르는 것이 불가능한 중요한 이유를 정확하게 깨닫길 바라고 계십니다. 이해하십니까? 여러분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오, 영혼의 창조자이시며,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어느 누구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는 자가 없으므로, 여러분이 누구를 섬기고 있는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돈을 섬길 수 없다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살아가기 위한 명분으로 돈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살아가야 할 이유'에 대하여 모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삶의 방식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민족, 문화, 그리고 사회는 돈과 맺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살아가야 할 이유를 알고 있다는 사실이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아는 최고의 식별력을 소유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뻐 뛰는 것이 아닙니까? 이 귀중한 사실은 감사함으로 받아야 할 어떤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주인이 누구인지 이해하신다면 왜 살아갈 일에 대하여 염려하십니까? 여러분의 주인이 이렇게 놀라운 말씀을 전하시는 창조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안다면, 먹고 입과 마시는 일에 대해서 잠시라도 안달해서는 안됩니다.

값없이 먹이시는 생명의 양식

예수의 산상수훈은 성경으로부터 기원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진리를 위해 구약성경의 본문을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실제적으로 진리의 빛을 비추기 위해 주변 환경의 자연스런 것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듣는 이들의 마음이 열리고 그 뜻이 전달되어지도록 새들과 백합화, 들의 풀과 같은 것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26절)?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 자신의 독생자를 죽이시려고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만일 여러분들이 이해하신다면, 진실로 참된 감사를 드리게 되지 않을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하신 놀라운 은혜의 선물에 대하여 모르는 것처럼, 사람들 역시 잘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공중의 새들이 내일을 염려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은 하루 종일 먹고, 둥지 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만을 합니다. 주님의 다음과 같은 말씀에 대하여 생각해 보십시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27절)?

값없이 입히시는 의의 옷

세상의 많은 돈과 비싼 옷, 그리고 좋은 음식은 이곳 지상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날들을 길게 연장시켜 줄 수 없습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28,29절). 예수께서는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창조물의 아름다움을 묘사하기 위해서 들의 백합화와 비교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권세를 나타내기 위해 다니엘서나 성경의 어떤 구절을 사용하시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예수께서는 솔로몬의 호사스러운 부유함을 비교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꽃을 돌보시는 손길이 솔로몬에게는 임하지 않았음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셨으면 자기의 아들을 죽음에 내던지기까지 하셨을까요? 우리하나님이 얼마나 힘과 능력이 충만한 분이신지 깨닫고 계십니까?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30절)!

우리의 참된 필요를 아시는 분

믿는 자들로서, 우리는 그와 같은 적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주셨고, 그것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기 소유의 것들에 대하여 염려합니다. 우리는 돈과 다른 것들을 우리의 주인보다 앞에 둡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깨닫기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31, 32절).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그는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걱정하면서 돈을 쫓아다니면서 먹고, 마시고, 입는 것들을 추구하는 것은 우리의 삶과 생애에 있어서 참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은 이방인들에게나 놀라운 것일 뿐입니다. 많은 시간을 들여서 이러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보면 말이지요.

마땅히 구할 것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33절).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길 원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러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요6:38, 39).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명을 구하길 원하십니다. 그는 모든 것을 주시고 싶어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롬8:32).

주님을 신뢰함에서 생기는 감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들은 단지 자기 자신에 대하여 관심을 둘 뿐입니다. 돈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들이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거나, 영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섬기길 원하십니까? 그리고 목적이 무엇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몸과 옷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돈을 섬기며, 소수의 사람들만이 자신들의 삶에 관심을 둡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명에 대해 관심이 있습니다. 창조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은 참 감사할 일입니다(마5-7장). 예수는 직접적으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인간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는 것과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 날 괴로움은 그 날에 족하니라"는 말씀으로 내일을 염려할 필요가 없는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34절). 감사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현실적인 것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아름다운 성경 구절들과 그것들이 여러분들을 교훈하는 내용을 바라보십시오. 깨어나십시오! 여러분의 짧은 한순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통치하심을 알면서 왜 염려하며 보내십니까? 그는 하늘과 땅을 만드셨습니다. 그는 자신의 자녀들을 위해 음식과 옷, 그리고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를 신뢰하며, 그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것에 대해 감사하십시오. 그의 신성과 은혜, 그리고 자비는 언제나 감사함으로 받는 자들의 것입니다.

선교 유적지 돌아보며 소명 다지기

100년 전 이 땅에 복음을 들고 들어온 서양 선교사들이 있었다. 노랑 머리, 파란 눈을 한 서양선교사들을 만난 그 시대 사람들은 이들을 '서양귀신' 이라 불렀다고 한다. 그들의 생김새가 얼마나 당혹스러웠으면 사람을 일컬어 귀신이라고 했을까? 가히 짐작할 만하다.

그토록 낯설기만 했던 외국인들로부터 전해진 예수 그리스도, 100년이 지난 지금 예수는 우리의 모든 것이 되었다.

깊어 가는 가을, 하나님이 함께 하신 흔적이 담긴 유적지를 돌아보며 소명을 다지는 은혜의 시간을 갖기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쉽게 찾을 수 있는 서울 근교에 소재한 유적지를 추천하고자 한다.

① **숭실대 기독교박물관** (서울지역): 우리나라에서 가치 있는 기독교 유물이 가장 많이 소장되어 있는 곳이다.

② **양화진 외국인 묘지**(서울지역): 초기 한국 선교와 관련된 선교사와 가족들이 묻혀 있는 곳이다. 영문도 모른 채 부모를 따라 우리나라에 왔다가, 이 땅에 묻힌 어린아이들의 무덤이 있는 곳이기도 하다. 양화진 외국인 묘지를 지나 바로 옆에 있어 걸어갈 수 있는 절두산 성지도 함께 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③ **한국 기독교순교자 기념관**(경기도 용인군 추계리): 일제 말기에 강요된 신사참배 거부투쟁과 또 해방 이후, 6.25전쟁 등을 통해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했다. 이러한 기독교인들의 '순교적 신앙' 을 계승하고자 자료들을 보존, 전시한 곳이다.

④ 제암교회(화성군 향남면 제암리): "마을에 있는 15세 이상 남자들은 모두 예배당으로 모이라" 는 일본 소장의 말에 따라 예배당으로 사람들이 모였다. 모인 사람들을 뒤로한 채, 예배당의 문에는 못이 박아지고 불을 지르고 총을 쏘기 시작했다. 기독교인을 포함하여 23명이 죽었다.

막상 유적지를 찾아가면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무척 초라한 느낌이 들 수 있다. 그러나 그곳은 하나님의 숨결이 남아 있는 곳임을 잊지 말고 진지한 자세로 돌아보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명을 다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겨울 단기선교 준비중

지금 세계 선교 환경은 급속히 변화되어 창의적 접근 지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교 흐름으로 인해 다양한 형태의 선교사역을 펼칠 수 있는 단기선교가 새로운 선교전략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러한 선교환경의 변화를 일찍이 파악하여 전통적인 선교 패러다임을 수정, 보완한 단기선교를 통해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여 세계복음화의 때를 앞당길 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선교에 헌신된 제자로 세워 선교 지향적인 교회를 세우고자 합니다.

우리교회 단기선교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젊은이들이 중심이 되어 진행되며 둘째, 국내외국인선교부에 출석하는 근로자들의 가정을 거점으로 삼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인도, 우즈벡키스탄, 몽골 등에 여름과 겨울 반복적으로 단기선교팀을 파송하여 복음의 씨를 새롭게 뿌릴 뿐만 아니라 이미 복음을 듣고 현지에서 신앙생활하는 이들의 신앙을 점검하고 양육하는 사역을 하며 셋째, 아프리카 지역은 현지의 열악한 생활형편을 감안하여 의료사역팀, 이미용사역팀, 어린이 사역팀 등의 전문사역팀을 파송하고 넷째, 단기선교를 다녀온 젊은이들 중에 선교사로의 소명이 확인된 이들을 훈련하여 단기평신도선교사로 파송한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2001년에 접어들어 우리교회 단기선교는 사역별로 전문 팀을 구성하고자 하며 선교지도 나라별에서 도시별로 세분화하여 더욱 창의적이며 적극적인 전략을 세우고자 합니다. 올 겨울에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우즈베키스탄, 수단(의료선교), 일본(동아인선교), LMTC 팀이 파송될 예정입니다. 12월 출발을 앞두고 준비중에 있는 단기선교팀을 통해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하여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선교위원회)

나온자 천국 갈 수 없잖아요

"미약한 힘이지만"

김 현 자 (집사, 2교구)

제1기 전도훈련을 마치고 제가 속한 수요팀은 노방전도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처음엔 교회를 중심으로 전도하다가 삼성동 코엑스로 장소를 옮겨서 전도했습니다. 코엑스에는 많은 유동인구가 있어 전도지를 나눠 주기에 편안했습니다.

그러나 3개월 정도 지나자 경비가 심해지고 경비원들과의 마찰이 생겨 르네상스호텔 주변으로 다시 장소를 옮겼습니다. 요즘은 수요일이 되어 그곳에 가면 낯익은 택시운전 기사님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안부도 묻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노방전도를 하다보면 열심히 하고도 어떤 날은 마음이 섭섭해지면서 '정말 오늘 내가 전한 전도지와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혼일까 아니면 그냥 스치는 사람일까'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던 중 우리 집에 이사오시게 된 분이 우리집에 있는 충현교회 교패가 좋다는 얘기를 하셔서 나는 그분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 우리 충현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십니다. 많은 씨를 뿌려도 바로 싹이 나지 않지만 많은 시간이 흘러 싹이 눈에 보이면 주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전도훈련을 받을 수 있게 하시고 전도자로 세우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죽기까지 고난을 받으면서도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처럼 나도 미약한 힘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최선을 다해 전도하겠습니다.

전도 지상강좌 (1)

"지혜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취리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며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막1:15)고 하셨습니다. 구약에서는 죄로 인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구원에 대한 행동으로 일관되어 있습니다. 전도란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을 보이시고 가르치신 복음을 전하는 구원행위와 사건을 의미합니다.

-전도에 대한 오해-

전도에 대한 가장 큰 오해 중 하나는 '전도는 은사'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즉, 전도는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이 하는 것이라면서 전도에 소홀히하는 성도를 가끔 보게 됩니다.

이들의 주장대로 전도의 은사를 받은 성도가 따로 있어서 하나님은 그들의 전도를 통해서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가?

이에 대해서 성경은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은 전도의 은사를 받은 성도가 땅끝까지 가서 모든 족속을 증인으로 삼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 대명령이며("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28:19-20)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가 마땅히 증인의 삶을 살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도는 성도의 마땅한 삶의 모습이지 결코 특별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아님을 깨달아 언제나 전도에 힘쓰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현민 (목사, 전도위원회지도)

나에게 오신 예수님

이 현 준 (대학부 4학년)

나의 대학 첫 학기는 나를 찾는 시간이었다. 비록 원했던 학교는 아니었지만 괜찮은 대우를 받고 들어갔고 태어나 처음으로 공부라는 것에 큰 재미를 느낄 수 있었다. 선배와 친구들에게도 인정을 받고 외부적으로 크게 힘든 게 없었던 시기였던 걸로 기억한다. 그제서야 한숨을 돌린 난 나와 우리 가족, 그리고 지난 날을 생각해 볼 여유를 갖게 되었다. 정도(正道)만을 걷도록 노력했지만 결과는 그게 아닌 것 같았다. 너무 위태롭고 불쌍한 나와 나의 가정이었다.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지… 왜 사는지. 인간이란 존재가 못마땅했다. 그렇게 믿어왔던 내 자신도 그 의심의 대상이었다. 어느 시점부터 나는 나의 정체성을 잃어가는 것 같았다. 대학의 자유로운 생활과 만족스러운 성취감도 잠시의 즐거움일 뿐 내 문제를 풀어 주진 못했다. 내 안의 내가 너무 힘겨웠다. 나와 가족이 무언가 이상한 길에서 헤매고 있다는 생각이 든 건 이 때부터였다. 이건 영적인 직감이었다. 훗날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이란 걸 알았지만.

난 고등적인 무엇인가를 찾고 있는 스스로를 발견했다. 인간은, 나 자신은 이제 더 이상 믿을 존재가 아니었다. 기독교에 워낙 긍정적이지 못했던 터라 좀더 인본(人本)적인 것에서 진리를 발견하길 원했다. 하지만 영광 중에 구름 타고 오실 것만 같은, 절대적인 누군가를 찾고 있던 나의 영에게 숨을 어떻게 쉬고 어떤 과정을 거쳐 스스로 뭔가를 얻어내야만 하는 천하디 천한 것들은 실망을 줄 뿐이었다. 며칠이 지났다. 서점을 배회하던 내게 교회에서 말하는 그들의 신이 나를 구원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쳐갔다. 난 어쩌면 원래 교회에 다니기로, 다녔어야 했었던 사람이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연이어 엄습했다. 어릴 적 TV에서 보았던 미지의 세계로 이끌려 가는 아이들처럼, 나는 연기에 가려 앞이 보이지 않는 신비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향하고 있었다.

나의 그 고귀하다고 생각했던 '이성(理性)'은 이렇게 절대자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갔다. 훗날 찬송가 168장 '하나님의 나팔소리'를 부르면서 영광 중에 구름 타고 오실 이가 바로 예수님임을 느낀 후, 내 영혼의 벅참이란! 어느새 나와 우리 가정은 구원열차에 오르고 있었던 것이다. 1997년 여름은 내 삶의 방향을 크게 바꾸면서 그렇게 흘러갔다.

벌써 3년이 지났다. 나를 친히 만나주셨고, 또 갈 길을 인도하시고 그 위에 축복하셨던 그분을 기억하며 나의 영이 감사 드린다. 하지만 욥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그 축복을 잠시 걷으시고 날 연단하신다면 그 때도 감사할 수 있을지는 자신이 없다. 그래도 이렇게 외칠 수 있도록 허락하실 그분을 또 소망하며 감사드린다.

"No matter what may come my way, my life is in Your hands!!"

대학부에 있는 동안

정 성 렬 (대학부 2학년)

대학부에 온지 벌써 2년이란 시간이 지나갔다. 이 시간동안 많은 변화들이 있었다. 고등부때 보았던 친구들이 대학부에 적응을 하지 못하며 떠나가는 것을 보고 많은 시간을 안타까워하며 보냈고, 내 주위에 아파하는 친구들을 보며 나도 아파하면서 보낸 시간들이 있었다.

대학부에서 난 나를 인정하게 되었다. 내 모습이 실제로 아름답지 못하다는 것을 발견하고 아파하는 시간들이 많았다. '아! 내가 실제로는 다른 사람들을 시기하고 있었구나. 내가 많은 것을 알고 있지 못하면서 아는 척을 했구나. 내가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지 못했구나. 집에서 내 행동들이 가족들을 아프게 했구나. 내가 하기 싫은 것과 손해보는 것은 절대로 하지 않으면서 내가 헌신한다고 했구나.' 등등 나에게 있는 약하고 약한 모습들을 볼 수 있는 시간들이었다. 교만해서 시간을 내 마음대로 사용했던 모습들. 그 시간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못해서 올바른 사랑을 할 수 없었던 나를 바라보게 했다.

이렇게 난 나를 인정하는 일들을 통해서 한가지를 발견할 수 있었다. 내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이다. 하나님 아버지! 내 힘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주님! 어쩔 수 없는 절규를 배웠다고 할까? 주님은 내게 대학부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다. 기도는 했었지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보단 내가 하고싶은 대로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다.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을. 하나님을 사랑해 나가는 방법을.

내가 만났던 그 뜨거웠던 하나님의 사랑.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셨던 사랑. 이로써 난 내 주위에 힘들어하는 많은 친구들을 위해 눈물을 지을 수 있었고, 함께 할 수 있었다. 지금도 많은 것들이 부족하기만 하다. 쉽게 짜증을 낸다거나 불평을 한다거나 하는 일들이 있기에. 그러나 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노력할 것이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고 픈 하나님의 사랑을. 나를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게 하는 그 가르침을. 영원히 잊지 않을 것이다.

만평

글 · 그림 / 장 민(minj74@jaangminn.com)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다음주부터는 미리 준비하겠습니다.

19(청년)교구 잔치

19교구에 소속된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일 시 : 11월14일(화) 19:00
장 소 : 메추라기홀
대 상 : 교구일꾼 및 단독 세대자
행사내용 : 예배와 식사 및 친교

복제

김 지 욱 (대학부 6학년)

'holydoly'. 내가 가지고 있는 각종 인터넷 사이트의 로그인 ID나 Password를 'holydoly(홀리돌이)'라고 지었다. 언젠가 거룩함을 본받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지은 것 같다. 홀리+돌이라고.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holy'라는 단어에 '돌이'라는 사람을 지칭하는 친근한 어미를 붙여서 'holydoly'라고 지었다. 기억하기 쉽게 'h'와 'd'만 다를 뿐 '-oly'의 반복을 추구해 보았다. '홀리돌이' 얼마나 친숙한가? 그런데 어느 날 옆에 있던 한 친구가 "홀리돌리"라고 읽어버린 적이 있다. 개인적으로 '돌리'라는 복제양의 출현이 과학의 발전보다는 창조자에 대한 도전처럼 느끼고 있는데(물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읽혀지는 대로 발음했겠지만) 나름대로 생각해 내서 비교적 holy하고 이쁘고 부르기 쉬운 이름을 생각해 낸 것을 거북스러운 복제품으로 전락시켜 버린 친구에게 "홀리돌리가 아니라 홀리돌이야!"라고 말하며 화를 버럭 내버렸다.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이고 아무것도 아닌 이름이다. 하지만 아무것도 아닌 이름('holydoly') 하나가 내 삶의 모습을 투영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홀리돌리'. 거룩한 복제품. 내 삶속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풍겨나오는 거룩함의 향기가 배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의 모습만 복제해서 살아가고 있는 내 삶임을 발견하게 된 것이다.

스스로 내 삶을 돌아보면 다른 사람 앞에서는 항상 거룩하게 보이려고 행동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된다. 학교에서든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혼자 있을 때를 제외한 모든 때에 거룩한 척하기 바쁘다. 마치 남 앞에 있으면 나 자신마저도 스스로에게 속아서, 남 앞에서의 내 행동처럼 내가 그렇게 거룩한(?) 사람으로 오해해 버려서 더욱 거룩(?)해져버린다. 특별히 교회생활에 있어서, 대학부에서 배우고 섬기는 동안 매번 누군가의 앞에 서야 하는 자리에 있어서 거룩하게 행동하는 것이 매우 자연스러워졌다. 마치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 정한 시간에 기도하며, 매일 그리스도와의 기쁨 속에 살고 있는 것처럼… 하지만 혼자 있을 때 나의 실상은 여실히 드러난다. 후배들 앞에서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가지는 묵상과 기도 시간의 소중함을 말하지만, 교회 갈 때만 들고 가는 가방 속에 일주일 동안 보관되는 성경책과 하루 세 번만 꼬박 하는 식사기도. 거룩함이 배어나오는 삶이 아닌, 거룩함을 본만 삶이 바로 솔직한 내 삶인 것이다. 홀리돌이의 삶이 아닌 홀리돌리의 삶이다.

하지만 놀라운 것을 발견하는 것은 이런 내 삶에도 소망이 있다는 것이다. 오히려 내 삶이 복제품임을 인정하기 전보다 인정하고 난 후가 더 그리스도로부터 거룩함을 배워나가는 일에 편한 마음으로 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 스스로 holy하다고 생각할 적에는 교만하여서 말씀을 온전히 마음에 새기지 않고 내 입술에만 새겼으나, 이제 나는 거룩하지 않고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된 후에는 비록 그 빈도수가 많지는 않지만 말씀을 입술에 새기기 보다 마음에 새기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

아직도 나는 내 모든 ID와 Password로 'holydoly'를 사용하고 있다. 이제는 처음 이 이름을 만들 때와는 다른 의미에서 사용한다. 그동안의 내 삶이 스스로 복제하고 있던 삶임을 매번 이 이름으로 자판을 두드릴 때마다 생각하며, 거룩함을 복제하고 있는 외식하는 삶 속에 잔잔히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느껴본다.

봉상에서

한나의 기도처럼

정태희, 고가이 (성도, 6교구)

간절한 기도 하나 드리렵니다. 마흔둘이나 먹은 아들 범용이를 위한 기도지요. 범용이는 지금 백혈병을 앓고 있습니다. 나이 먹고 이 무슨 고생을 시키는지. 그러나 범용이 병을 발견하게 된 경위를 알게 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은혜임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는 범용이 애비가 아팠지요. 갑자기 피를 토해서 119 구급차에 실려 갔습니다. 실려 가서는 20일간 입원을 했지요. 그야 나이를 먹었으니 당연히 아픈 것이지요. 저도 척추 골절로 고생하다 수술하고 범용이 애비도 담석증으로 고생을 했지요. 그러니 피를 토해도 그러려니 했습니다. 애비가 쓰러졌다는 소리를 듣고 아들이 달려 와서는 초조해 하다가 자신도 너무 아파서 온 김에 진찰을 받아 봤는데 바로 백혈병이라는 겁니다. 그것도 아주 심하다는 겁니다. 바로 입원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래서 '주간충현'에 헌혈증을 부탁하는 광고를 냈었지요. 헌혈증을 준 이원희, 김선영씨 감사드리구요. 기도해 주시고 헌혈증 주신 김경희 구역장님 감사드립니다. 이종대 목사님도 너무 좋으시고 보고싶고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헌혈증은 많이 부족합니다. 피가 계속해서 필요합니다. 범용이는 지금 상처가 나면 아물지를 않습니다. 계속 피곤하고 소화가 안 됩니다. 감기가 계속되고 속이 메스꺼우며 뼈밖에 안 남았습니다. 피주사를 하루에 15개씩 맞아야 하며 항암제도 맞습니다. 그리고 무슨 피를 팔에 안 놓고 가슴팍 심장에다가 놓는지 끔찍합니다. 이젠 무균실로 들어가는데 무균실은 유리로 된 방으로 균이 하나도 없어야 하니까 아무도 못 들어가고 혼자 있어야 하는건데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범용이는 유미와 희진이 두 딸을 두고 있습니다. 아내는 범용이를 전도한 참한 아이입니다. 범용이는 아내 덕분에 우리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알았지요. 저는 학창시절 미션스쿨을 다니며 하나님을 믿다가 예수님 안 믿는 남편에게 시집가 교회 못 다녔더니 자꾸 아프고 고생해 예수 안 믿어 고생하나 했더니 박권사 전도로 남편도 예수를 믿는데 남편이 아프지 않았다면 어떻게 아들이 병인 것을 알았겠습니까. 이것은 필시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된 것이니 감사합니다. 치료가 어렵다지만 희망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한나가 술 취한 듯했던 기도처럼 기도합니다. 부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게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헌혈증은 주간충현실(선교관 4층, 406호)로 가져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르시면 019-467-7716으로 연락 주십시오.*

✚ 양호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엡 6:18)

5교구 고길종 성도님 암으로 천호동 부활내과의원에 입원해 있고 ***김재수 집사***님 역시 암으로 강남시립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19교구 신근민 학생 (고2) 골육종(뼈암)으로 원자력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빨리 회복해 학업에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은 항상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당신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그리도 많은지요. 주님은 그 뒤에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여러 성도를 위해 구하라! 저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

구역탐방

거짓 가르침에 관한 교훈

4교구 6지역 무지개 구역
구역장 이천애 집사

모임은 활발한 토론으로 진행됐다. 무지개 구역은 하나님 안에서의 사랑을 증거하기를 즐겼다. 그 증거는 물론 자신들의 낮아짐으로 인해서였다.

많은 성도들이 생활 속에서 많은 부분들을 율법에 얽매여 산다. 그것! 우리가 율법에 얽매여 산다는 것을 느끼기란 율법에 얽매여 사는 삶에서 벗어나는 것만큼이나 어렵다. 무지개 구역에배는 이것을 고백함으로 시작했다. 우리 생활 속에 남겨진 율법 자체의 단단함들. 율법으로 인해 무시되어지는 복음의 소리. 한 성도님은 자신에 대한 주장이 복음 때문이어야 하는데 자존심 때문에 할 때가 많다는 진솔한 고백을 하기도 했다.

성도들이 믿음을 포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파악했다. 신앙이 복음주의적이지 못하고 율법적이며 기복신앙에 의지하기 때문에 신앙을 잃게 된다는 것이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솔직한 고백들이 나왔는데 한 성도님은 자신보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이 돈 때문에 싸우는 것을 보고 시험에 든 적이 있다고 고백했다. 그러나 지금은 복음주의적인 신앙을 갖게 되니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사람을 보지 않게 되었다고 했다. 또 다른 성도님은 기도의 응답이 없어서 돌아설 뻔했는데, 지금은 진정한 복음을 알게 됐고 시험에 이길 수 있게 되었다고 고백했다. 고백과 간증이 없었던 다른 성도님들도 오늘의 말씀으로 율법주의와 기복신앙과 복음주의의 차이점을 알게 되었다며 기뻐했다. 많은 성도들이 시험에 들고 교회와 멀어지며 저항하는 것은 온전한 복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거짓 가르침에 빠져서라며 주변에 거짓 가르침을 갖고 사는 성도가 있으면 온전한 복음을 나눌 수 있도록 권유하자고 촉구했다. 그리고 생활에 관련된 부분들. 자녀관리와 십일조와 헌금에 관한 부분들도 어떻게 해야 율법주의적인 강박관념에서 빠져나와 복음주의적인 온전한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지를 나눴다. 예배 후엔 서로 전도할 사람들을 나누고 어떻게 해야 전도할 수 있을지를 이야기 했다. 전도될 사람들의 상황과 성격 등을 나누고 한 번 초청해 보자 결정하고 기도로 끝냈다.

무지개 구역뿐만 아니라 다른 충현의 성도들도 같은 말씀을 나누고 성장했을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기쁨으로 차 올랐다.

(권요셉 기자)

아버지 아버지

이 창 순 (집사, 4교구)

아버지를 전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음에 소원함이야 간절했지만 아버지가 왜냐 왼고 하시다 보니 예수님 얘기를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몇 번 꺼내 봤지만 "너나 믿으라고. 우리한테는 얘기도 하지 마!" 하시며 완강히 거부하셨습니다.

구역예배 때마다 항상 아버지 기도를 부탁했지요. 오랜 시간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꾸준히 기도한 결과를 하나님께서 보여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아프셔서 중환자실에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혹시나 하는 생각에 중환자실로 뛰어가면서 이번 기회에 아버지가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째 왠 일입니까. 면회시간이 지났다고 못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도 마음의 소원함이 들어가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부탁해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들어가서는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때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때였습니다. 아버지는 기도하는 저의 모습을 보고 계셨습니다. 왠지 마음을 여실 것 같아 기회는 이때다 생각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래 내가 믿지" 하시며 긍정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번엔 장로님을 모시고 가서 합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버지는 지금 마음을 많이 여셨습니다. 오빠도 예전엔 교회를 다녔었는데 요즘은 잘 안가니까 아버지가 오히려 오빠는 왜 교회를 안 가냐고 물으십니다.

아직 더 많은 것을 아셔야 하고 더 많은 부분에서 마음을 여셔야 하지만 이만큼의 가능성을 보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어린 눈에 비친 사랑

이 희 주 (유년부 교사)

어느 분반 공부 시간.

선생님: 오늘은 '사랑' 에 대해서 알아볼꺼야. 얘들아! 사랑이 뭐야?
나연: 예쁜 거에요. 근데 실천도 해야 더 예뻐요. 불쌍한 사람도 도와주구요.
재필: 저번에 필사성경에서 썼었는데요. 사랑은 예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대요.
성경: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거에요.

선생님: 그래.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데?
지혁: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돌아가셨잖아요. 우리 사랑하시니까…
재필: 그래서 더러운 우리 마음이 그 피로 깨끗하게 변할 수 있는 거래요.
성언: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니까 우리한테 성경책을 주셨죠.
지용: 찬송가두요. "예수 사랑하심은…" 그 찬양도 주셨어요.

선생님: 맞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 그럼, 그런 하나님을 너희는 어떻게 사랑하니?
성경: 매일 기도해요. 밥 먹을 때 감사하다고 기도하구요, 교회 와서도 해요.
나연: 저도 우리 할머니 아프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지혁: 불쌍한 사람들 도와줘야 돼요. 나쁜 말 안 쓰고 착한 일 해야 돼요.
성언: 학교 친구 데려오는 것도 해야 돼요. 전도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신댔어요.

선생님: 그래, 그게 바로 사랑이야. 너네가 말한 게 다 정답이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더 예쁘게 자라나자. 알았지?

우리보다 앞서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 그분의 인도하심이 있었기에 오늘 하루도 기쁨 가운데 아이들과의 따스한 만남을 가질 수 있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요한일서 4장 16절)

아이들이 새롭게 변화될 그날을 기대하며

마 영 숙 (초등부 교사)

우리 초등부 예배시간은 오전10시30분 예배시작 5분전부터 내 가슴은 두근반세근반 뛰기 시작한다. 고개는 쉼없이 뒤쪽에 있는 문쪽으로 돌아가고 시선은 한두명씩 늦게 들어오는 아이들의 모습을 쫓아가지만 낯익은 우리 아이들의 얼굴은 보이지 않는다.

주여 나를 시험하시나이까 푸념섞인 하소연도 잠시 해본다. 지난주에 다시는 지각하지 않겠다고 새끼손가락 걸고 손도장으로 약속까지 했었는데… 집이 먼 친구들이 5분, 10분 지각하는 걸 묵인해 준 내탓이려니…

공과 공부시간, 일주일에 한번 보는 얼굴이라 나만큼이나 아이들도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지 틈틈이 지난주엔 어떻게 지냈어? 질문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여섯명의 입이 동시에 열린다. 쫑알쫑알… 친구들 얘기부터 먼저 들어주자는 나의 애원섞인 눈인사도 통하지 않는다. 잠시동안 귀가 멍하지만 그래도 매주 그시간이 기다려지는건 무슨 이유일까.

남자아이의 비율이 높아서인지 우리반은 한마디로 시장통이다. 아이들을 통솔하다보면 어느새 내 목소리가 고음의 찢어진 목소리로 둔갑해 있다. 아이들과 똑같은 수준으로 떨어져서 고민하는 나를 보면서 신실한 믿음의 소유자인지 질문을 나에게 던져보지만 대답이 시원찮다. 그래도 너무나 감사한 건 제각각 장난기 가득한 아이들의 표정에도 사뭇 진지함이 있다. 아이들의 해박한 성경지식에도 도전을 받기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대도 섬기면서 아침 일찍부터 연습에 동참하는 몇몇 예쁜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진지한 감동과 가능성을 본다.

매주일 투닥거리고 시끄러운 5과9반이지만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그리고 신령한 예배에 동참하는 신실하고 지각없는친구들이 다되게 해달라고 기도드린다. 아이들이 새롭게 변화될 그날을 기대하면서….

아버지를 천국에 보내며

권 향 임 (소년부교사)

1999년 10월 갑작스러운 아버지의 폐암4기 선고! 1남6녀의 자녀들을 헌신적으로 사랑으로 키워주신 부모님이셨다. 우리 부모님은 나이가 많으셨다. 어린 초등학교시절, 비가 오는 날 아버지는 우산을 갖고 오시면 친구들이 '향임아, 너의 할아버지 오셨다'. 그런 아버지를 나는 부끄러워 했고, 그럼에도 아버지는 날 사랑해 주시고 품어주셨었다.

연세많으신 부모님으로 나는 어려서부터 부모님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갖고 있었다. 그런 나에게 아버지의 폐암 선고는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을 가졌다 주었다. 나는 아버지가 계시는 병원에 며칠 가질 못했고 울면서 방황만 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아, 그래 하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도 살리셨고 나면서부터 소경도 보게 하셨지! 내가 때 쓰면 들어주실꺼야'. 난 하나님께 계속 기도를 드렸으나, 아버지의 상태는 점점 나빠지셨다. 난 하나님을 원망도 하다가, 미워도 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고난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는 표현을 그렇게 하셨다. 난 아버지가 고통스러워하시는 중에도 하루에 몇번 주기도문으로 신앙고백하시는 모습을 보았다. 아버지께 보지 못한 모습을 하나님의 은혜로 보게 된 것이다.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하시며 구원의 확신이 없으시던 분이 그 병상을 통해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게 된 것이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며칠전 밤, 우리 가족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셨다. 그순간, 눈이 부셔 손으로 눈을 가리시더니 한참을 회개하시고 감사기도를 드리신 것이었다. 가슴이 뜨거운 장면이었다. 그리고 지난 8월31일 아버진 천국에 가셨다. 아버지를 통해 난 아프셔도 다듬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고, 진정으로 천국의 소망을 내 마음속에 품을 수 있게 되었다. 나도 이젠 감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

고난! 인간적으론 참 두려운 단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견딜 수 있는 만큼만 주시고 그 후엔 하나님을 사랑하는 큰 기쁨과 소망을 주신다는 것을 깨달았다. 가끔 아버지가 가슴시리도록 보고 싶어진다. 그럴 때면 끝까지 지켜주시던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감사를 드린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니

주님의 과외

언뜻 스쳐가는 한순간의 잊혀지지 않는 감동을 붙잡는다.

이를 밝히기를 꺼리시는 한 성도님께서 고민을 의뢰했다. 주를 배반한 아들을 걱정하는 간절한 의뢰였다. 자녀에게 조차 그리스도의 편지역할을 못 감당하는 자신을 책망했다. 상황인 즉 이렇다.

성도님은 세 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지금은 다들 장성했지만 학생자녀 세 명을 키운다는 것은 정신적으로도 그렇지만 경제적으로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다. 그런데 주변 학부모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과외를 안 시키는 학부모가 없었다. 성도님은 누구 못지 않게 자녀를 사랑하는지라 과외를 시키려고 한 푼 두 푼 모았다. 그리고 과외를 시작했다. 그러나 왠지 하나님 앞에 떳떳한 생각이 들지 않았다. 그리고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키우고 싶은 생각에 과외해야 할 돈들을 하나님께 바쳤다. 그렇게 1년씩 3년을 하나님께 과외를 부탁했다. 하나님의 영적 과외는 참으로 놀라웠다. 자녀들은 새벽기도까지 나와 가며 하나님께 의뢰했다. 정말로 감사했다. 이런 과정속에서 성도님의 건강은 날이 갈수록 나빠졌다. 온 식구가 매달리며 기도 했지만 좋아질 기색이 보이질 않았다. 특히 첫째는 어머니의 병을 유난히 안타까워했다. 그러다가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둘째와 셋째는 꾸준히 하나님을 의뢰하는데 첫째가 군대를 갔다 오더니 하나님을 부인하고 교회를 멀리하기 시작했다. 세상일에는 엘리트 소리를 들어가며 아주 열심이었는데 하나님 일은 아예 잊은 듯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달래보았지만 '신'은 없다며 딱 잘라 말하고 교회 올 것을 강요도 해 보았지만 신앙은 자유라며 돌아올 생각을 안했다. 효자 소리 들을 정도로 잘 하다가도 종교 얘기만 나오면 대화가 끊겼다.

대충의 이야기가 이렇다. 그리고 성도님은 심각하게 기도중이다. 조금은 자신이 주의 편지역할을 잘못한 것이 아닌가 자책하기도 한다. 그러나 성도님! 보고 계시지요? 당신은 온전한 편지랍니다. 아주 어여쁜 편지랍니다. 세상의 과외보다 오직 주만 의지하고 싶었다는 당신의 고백, 주님께 과외를 부탁한 당신의 믿음은 주님이 잘 알고 계십니다. 첫째가 아직 그 편지를 뜯어보지 않았나 보지요. 곧 그 편지가 열릴 겁니다. 힘 내세요.

(편집실)

교회소식 / 새가족 소개

알 림

1. 방송실 한글 자막 통역 봉사자 (찬양예배)구함
 충현교회 방송실에서 성실히 봉사할 한글자막통역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자격 : 충현교회 세례교인
 문의 : 552-8200(교환:224), 562-4872
2. 벧엘 찬양대원 모집
 주일5부예배를 섬기고자 하시는 분들은 다음의 연습시간에 참여해 주십시오.
 연습시간
 · 주일 5부예배후, 베다니홀
 · 목요일 19:00 호산나홀
3. 충현남성중창단 단원모집
 · 파트 : 테너, 베이스 약간명
 · 자격 : 충현교회성도로 군필자
 · 오디션 : 26일(주일)
 · 문의 : 찬양위원회실
4. 제1회 충현중창의 밤 지도자 기도회
 · 일시 : 오늘 18:30
 · 장소 : 찬양위원회실
5. 메시아 연합 찬양연습
 성도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습니다. (오늘까지 접수)
 · 일시 : 매주일 18:30~20:30
 · 장소 : 나사렛홀
6. 교정전도회 원주교도소특별집회
 · 일시 : 15일(수) 9:00
 · 장소 : 동문출발
7. 경찰전도회 제4기동대 전도집회
 · 일시 : 14일(화) 19:00
 · 장소 : 교회에서 16:20분에 출발
8. 장년1부 특강 실시
 19일(다음주일) 장년1부 집회시간에 '위기의 40대 몸부터 챙기자'라는 주제로 특강을 실시한다. 이에 성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
9. 제1교구 하반기 '충주기금교회 농어촌 · 이미용 전도'
 · 일시 : 30일(목) 7:00
 · 장소 : 교회 동문 출발
10. 태신자와 함께 하는 8교구 추수감사 잔치
 · 일시 : 19일(다음주일) 14:00
 · 장소 : 메추라기홀

모 임

1. 장로 월요새벽기도회
 · 일시 : 13일(월)새벽기도회후
 · 장소 : 교육관 109호
2. 안수집사회 화요새벽기도회
 · 일시 : 14일(화) 새벽기도회후
 · 장소 : 베다니홀
3. 전도위원회 월례회
 · 일시 : 오늘 15:30
 · 장소 : 전도위원회실
4. 기획위원회 월례회
 · 일시 : 오늘 15:00
 · 장소 : 선교관 302호
5. 건축위원회 월례회
 · 일시 : 오늘 16:00
 · 장소 : 선교관 5층 회의실
6. 경찰전도회 월례회
 · 일시 : 오늘 15:00
 · 장소 : 메추라기홀
7. 학원전도회 월례회
 · 일시 : 오늘 12:20
 · 장소 : 본당 지하110호
8. 권사 제2지회 월례회
 · 일시 : 15일(수) 수요1부예배후
 · 장소 : 영아부실

남녀 전도회

1. 바울 1지회 월례회
 · 일시 : 18일(토) 17:00
 · 장소 : 자연사우나 (18:30 OK 면옥)
2. 바울 7지회 월례회
 · 일시 : 23일(목) 19:00
 · 장소 : 큰댁설렁탕
3. 바울 10지회 월례회
 · 일시 : 18일(토) 18:00
 · 장소 : 풍전식당(903-4415)
4. 바울 12지회 월례회
 · 일시 : 19일(다음주일) 교구모임후
 · 장소 : 교육관 314호
5. 바울 17지회 월례회
 · 일시 : 19일(다음주일) 교구모임후
 · 장소 : 교구모임장소
6. 베드로 1지회 월례회
 · 일시 : 21일(화) 19:30
 · 장소 : 교육관 109호
7. 베드로 4지회 월례회
 · 일시 : 18일(토) 19:00
 · 장소 : 정병택 집사댁(장원식당)
8. 베드로 9지회 월례회
 · 일시 : 16일(목) 19:30
 · 장소 : 조규화 집사댁(971-0973)
9. 베드로 14지회 월례회
 · 일시 : 18일(토) 15:00
 · 장소 : 관악산 매표소입구 모임 (부부동반)
10. 베드로 15지회 월례회
 · 일시 : 오늘 교구모임후
 · 장소 : 영아부
11. 한나 1지회 월례회
 · 일시 : 오늘 교구모임후
 · 장소 : 교구모임장소
12. 한나 2지회 월례회
 · 일시 : 오늘 교구모임후
 · 장소 : 교육관 314호
13. 한나 5지회 월례회
 · 일시 : 오늘 교구모임후
 · 장소 : 교육관 212호
14. 한나 6지회 월례회
 · 일시 : 오늘 교구모임후
 · 장소 : 제2교육관 4층
15. 한나 8지회 월례회
 · 일시 : 오늘 교구모임후
 · 장소 : 메추라기홀
16. 한나 9지회 월례회
 · 일시 : 오늘 교구모임후
 · 장소 : 봉사관 지하2층
17. 한나 10지회 월례회
 · 일시 : 오늘 교구모임후
 · 장소 : 아벤홀
18. 한나 12지회 월례회
 · 일시 : 오늘 교구모임후
 · 장소 : 칼빈홀
19. 한나 14지회 월례회
 · 일시 : 오늘 교구모임후
 · 장소 : 갈릴리홀
20. 한나 15지회 월례회
 · 일시 : 오늘 교구모임후
 · 장소 : 영아부실
21. 한나 17지회 월례회
 · 일시 : 오늘 교구모임후
 · 장소 : 복지관 지하1층
22. 에스더 4지회 월례회
 · 일시 : 14일(화) 11:00
 · 장소 : 영아부실
23. 에스더 12지회 월례회
 · 일시 : 19일(다음주일)교구모임후
 · 장소 : 칼빈홀
24. 루디아 1지회 월례회
 · 일시 : 13일(월) 10:30
 · 장소 : 영아부실
25. 루디아 2지회 월례회
 · 일시 : 20일(월) 10:00
 · 장소 : 동문출발 (글로리)
26. 루디아 4지회 월례회
 · 일시 : 16일(목) 11:00
 · 장소 : 이천애 집사댁
27. 루디아 15지회 월례회
 · 일시 : 오늘 교구모임후
 · 장소 : 영아부실
28. 루디아 16지회 월례회
 · 일시 : 16일(목) 11:30
 · 장소 : 평촌 뉴코아 뷔페
29. 마리아 1지회 월례회
 · 일시 : 21일(화) 10:30
 · 장소 : 영아부실
30. 마리아 2지회 월례회
 · 일시 : 21일(화) 10:30
 · 장소 : 칼빈홀
31. 마리아 4지회 월례회
 · 일시 : 14일(화) 10:30
 · 장소 : 오귀봉 집사댁
32. 마리아 10지회 월례회
 · 일시 : 14일(화) 10:30
 · 장소 : 이정애 집사댁(999-2235)
33. 마리아 12지회 월례회
 · 일시 : 오늘 12:20
 · 장소 : 칼빈홀
34. 마리아 15지회 월례회
 · 일시 : 오늘 12:10
 · 장소 : 영아부실

별 세

1. 백남승 타교장로
 (박홍규 장로의 장인, 백영기 권사의 부친, 2교구 논현구역) / 8일 별세, 10일 장례

결 혼

1. 장재성 군(장영창 집사의 아들, 8교구)과 정연옥 양(정재호 씨, 김영자 집사의 딸) / 18일(토) 13:00 갈릴리홀
2. 박응식 군(박정태 집사, 박전민 집사의 아들, 4교구)과 이수연 양(김경희 씨의 딸) / 18일(토) 15:00 자유센타웨딩홀 평화홀 (2234-8000, 남산국립극장 앞)
3. 안정식 군(안병설 집사, 남숙자 집사의 아들, 11교구)과 강한미 양(강인좌 씨, 이용수 씨의 딸) / 18일(토) 15:00 한국의 집 (2266-9174)

주소 변경

1. 김단용 장로
 영등포구 양평동 3가 90-1 거성파스텔 104동 301호 ☎2635-0196
2. 윤선기 집사
 ☎2295-2583

충현중보의창

① 김성관 담임목사의 사역에 성령께서 통치하심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영적인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언제나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는 정결한 통로로 사용하여 주소서.
② 김창인 원로목사의 남은 생애가 더욱 더 복음의 진리에 붙들리게 하시고, 모든 교역자가 영혼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경건의 능력을 소유하게 하소서.
③ 장로와 안수집사, 권사와 집사 및 모든 직분자가 진리를 확신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군사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게 하소서.
④ 충현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고, 성령의 통치를 받으며, 주어진 5대 목표를 성취하는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⑤ 모든 위원회에 속한 기관들이 주어진 본분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함께 일해감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게 하소서.
⑥ 충현에 속한 모든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들의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에게 첫 자리를 내어드리며, 성경 말씀과 일치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새·가·족·을·환·영·합·니·다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942	강덕암	3	청년2부	한은하(3)	956	조덕진	13	청년2부	최귀훈(7)
943	강민이	3	청년2부	한은하(3)	957	나봉순	13	청년2부	최귀훈(7)
944	조공	3	바울	노광회(15)	958	안을순	16	소망부	안상직(5)
945	이춘숙	3	한나	노광회(15)	959	박귀너	16	소망부	안상직(5)
946	조영희	5	루디아	노광회(15)	960	오종은	19	대학부	
947	유재환	5	베드로	노광회(15)	961	김태정	19	청년1부	홍현숙(7)
948	정양택	5	바울	정병화(3)	962	이지연	19	고등부	문영신(2)
949	김희수	6	에스더	유기연(6)	963	김의덕	2	루디아	유일옥(2)
950	김광호	6	베드로	김차철(8)	964	김유항	3	청년2부	하영귀(3)
951	박화선	6	청년2부	김차철(8)	965	황정주	19	청년2부	
952	위진우	8	청년2부	최경순(8)	966	강승표	2	청년2부	
953	박순덕	9	한나		967	이현화	2	청년2부	
954	원미성	9	청년2부	최귀훈(7)	968	이점순	10	청년1부	
955	조은빈	9	중등부	최귀훈(7)	969	박란주	10	마리아	

❀ 충현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하반기 정기감사 실시

금년도 하반기 정기감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각부서의 회계는 10월말 기준으로 감사자료를 준비하여 11월중에 감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1. 대상기간 : 2000년 1월부터 10월까지
2. 대상기관 : 각위원회 산하 전부서 (단 남 · 녀 각 전도회는 전도위원회의 감사를 받고 군, 경찰, 교정, 실업인, 이미용, 학원 등 특수전도회는 본 감사를 수감할 것)
3. 제출서류 : 시산표(1월부터 10월까지 10개월간 전체시산표) 금전출납부, 원장, 영수증 등 증빙철, 시재현금 또는 예금통장(인감포함)
4. 감사실시기간 : 11월 첫주일부터 11월 마지막주일까지
5. 감사실시 장소 : 제1교육관 208호 감사위원회실

교회오시는길

쓰레기 분리수거 철저

종이류, 병과 캔,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로 각각 분리수거

전국적으로 쓰레기 분리수거가 철저하게 시행됨에 따라, 교회에서도 성도들이 분리수거에 적극적으로 임해주길 바라고 있다. 정부는 300평 이상의 규모에서 배출된 쓰레기는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지시하고 있으므로, 가능하면 쓰레기를 배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배출된 쓰레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종이류, 병과 캔류, 그리고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로 나누어 버려야 한다. 충현의 모든 식구들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쓰레기 분리수거에 철저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

(사진은 교회에서 배출되고 있는 쓰레기의 분리수거를 하고있는 미화부 집사님들의 모습이다.)

섬·기·는·분·들

■ 위임목사 김성관

■ 시무장로

김의철 (선교위원장)	조선근 (기획위원)	김은호 (교구위원장)	노광헌 (당회 서기)
오진국 (탁아부장)	이병학 (제3교육위원장)	윤인현 (선교위원)	최대원 (제2교육위원장)
엄필성 (장년3부장)	강모용 (새가족부장)	오정헌 (예배위원장)	이 훈 (찬양위원장)
남선우 (제1교육위원장)	서동석 (당회부서기)	정운석 (제8교구장)	김영길 (제16교구장)
문홍구 (초등부장)	조인제 (아멘찬양대장)	김종구 (유아부장)	최무길 (장년1부장)
김천채 (할렐루야찬양대장)	이창호 (장년2부장)	차신득 (감사위원장)	김재명 (행정위원장)
박영식 (전도위원장)	김광남 (재정위원장)	이종석 (제5교구장)	윤성철 (기획위원장)
이하영 (제17교구장)	박인건 (제13교구장)	김인관 (제6교구장)	이병옥 (제3교구장)
안종욱 (재정위원)	최명환 (유년부장)	임무천 (고등부장)	이종섭 (가브리엘찬양대장)
최기홍 (제11교구장)	이갑재 (제15교구장)	진홍용 (예배대부장)	전홍렬 (제9교구장)
이정우 (임마누엘찬양대장)	김단용 (중등1부장)	황영일 (제4교구장)	손 철 (영어교육부장)
한송규 (중등2부장)	김영수 (선교위원)	정홍식 (선교위원)	김환기 (신혼가정부장)
원응철 (중등3부장)	이형수 (청년1부장)	안동현 (소년부장)	황의만 (대학부장)
김구형 (유치부장)	최윤덕	이계인	박덕양
이태식	정태두	박홍규	권명옥
최성현			

■ 부목사
이홍성 이종대 이승수 정현민 김동하
차병준 김병태 김인식 서광진 정해성
이준경 박인기 여성기 류병회 노경묵
임채훈 이종철 김영훈 여국근 김교성
송길환 이수근 이유진 안창덕 방준영
■ 교육목사 정준희 한승일
■ 협동목사 윤영탁 박형용
■ 선교사 이준교(이집트) 안석렬(수리남) 정은희(수단)
■ 찬양감독 강임구
■ 강도사 김영기 허용구 이종태
■ 여전도사
정연희 임태주 김정자 배옥인 최지혜
송향자 신동자 윤인숙 김옥윤 한영준
김연식 홍순애 이옥주 김말자 안태순
최효심 백명자 김정연
■ 교정전도사 박양덕

예배 안내

구분		시간	장소
주일예배	I	오전 7:00	본당
	II	오전 9:00	본당
	III	오전 11:00 (수화, 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본당
	IV	오후 1:00(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본당
	V	오후 3:00 (젊은이가 드리는 예배)	본당
	English Service	9:00 a. m.	갈릴리홀(Galilee Hall)
찬양예배		오후 5:00	본당
수요예배		I 오전 11:00 II 오후 7:00	본당
금요집회		오후 7:00	본당
새벽기도회		오전 5:00	본당